

문학과 의학교육

이 영 미

고려대학교 의과대학 의학교육학교실

1. 인간을 대상으로 하는 예술로서 의학과 문학

오랫동안 문학은 눈에 보이지 않는 인간의 감성을 다루는 인문예술장르로서, 의학은 눈에 보이는 인간의 신체 즉, 과학적 사실을 연구하는 분야로 인식되어 왔다. 문학과 의학은 다루는 분야뿐만 아니라 접근방법 역시 상이하기에 공통점이 없다고 여겨져 왔으나 실상 이 두 분야만큼 밀접한 공통의 문제를 다루는 것도 흔치 않다. 의학과 문학은 모두 '인간을 대상으로 하는 예술(humanistic arts)'이라는 철학적 기초를 바탕으로 하기 때문이다. 의학은 인간의 생명에 관한 연구를, 문학은 인간 자체를 그 대상으로 한다(Shapiro, 2001).

히포크라테스는 환자의 말을 잘 들을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만 의료의 효과를 높일 수 있다고 하였다. 모든 의사들이 생의학적 지식과 기술의 발전에만 몰두하고 있던 20세기 초반에도 윌리엄 오슬러와 같은 위대한 교육자는 의사가 될 학생들에게 문학작품에 대한 철저한 교육이 의학 교육중에 있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많은 대작

들에서는 질병과 죽음에 대한 의미를 예술적으로 나타내려고 노력하였고 의사이면서 작가였던 안톤 체홉, 키이츠 등은 문학과 의학의 공통적 관심과 방법을 접목시켜 위대한 문학작품으로 승화시켰다.

의료의 지나친 기계화, 도식화에 대한 반발로서 1970년대 초반에 북미지역에서 '인간에 대한 총체적인 학문으로서의 의학의 모습을 회복하는데 문학이 도움이 될 것'이라는 안목을 가진 의학 교육자와 인문학자들에 의해 문학은 의학교육에서 재조명을 받게 된다. 이후 1980년대부터 선진 의과대학 교육과정에는 소설, 시, 드라마, 미술로 표현된 건강과 질병에 대한 다양하고 변화하는 사회적 인식에 대한 이해를 다루어오고 있다(Charon, 2000).

과거 수 천년 동안 동서양을 막론하고 의료는 인간을 다루는 학문이었다. 단지 19세기 말과 20세기에 이르러 의료가 응용과학 분야로서 강조된 것이기 때문에 이러한 환원은 직업의 본질을 찾으려 하는 노력으로서 당연한 결과라고 할 수 있다.

II. 문학은 의학도와 의사들에게 어떤 영향을 주는가?

문학이 의학교육에서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는 이유는 의료인으로서 전문성 개발과 습득에 있어 문학이나 예술이 '강력한 학습도구'로 인식되고 있기 때문이다 (Calman, 1997; Downie et al, 1997; Sweeny, 1998). 문학은 의학도들에게 여지껏 경험하지 못하였거나 앞으로도 결코 직접 접할 수 없을지도 모르는 다양한 진료 상황에 대한 간접경험을 가능케 한다.

문학 작품을 통하여 얻는 경험은 질병을 앓고 있는 인간의 고통과 아픔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이해하도록 도와준다. 의사에게 있어 환자는 단순히 일의 대상이 되기 쉽다. 반면, 의사의 입장이 아닌 문학 적 통찰력에 기초한 문학 작품들은 일상의 눈으로 파악하지 못할 수도 있는 '질병에 따른 인간의 고통과 삶과 죽음에 대한 깊은 차원'을 우리에게 제시한다. 즉, 문학은 질병을 경험하는 인간에 대한 '전인적 이해'를 가능하게 해준다.

문학은 환자에 대한 이해 뿐 아니라 의업에 대한 심층적인 이해를 통하여 자신의 의술과 삶을 성찰하게 함으로서 임상에서 부딪히는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해결책을 제시한다. 문학 속에 그려진 다양한 의사들의 모습, 의사와 환자의 관계, 일반인들이 바라고 있는 바람직한 의사의 모습 등을 통하여 의사들 자신에 대한 반성적 지식을 갖게 한다. 또한, 사회의 다양한 시각들이 의사와 질환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지, 사회의 의사에 대한 기대는 무엇인지에 대한 이해를 촉진한다.

III. '문학과 의학' 과정의 단계별 접근

'문학과 의학' 과정은 의학 교육의 전 단계에 걸쳐 시행될 수 있으며 각 시기에 따라 교육 목적과 방법이 다르다 (Charon, 2000).

예과 과정에서 '문학과 의학' 과정은 의사가 될 꿈을 가지고 있는 학생들에게 의학과 인문학 사이의 연관성에 대한 가이드 역할을 한다. 문학 작품을 통해 학생들은 질병과 상실의 문제에 대하여 접하게 되고 의료와 관련된 내러티브 기술에 익숙해지기 때문에 이 과정은 학생들을 의료라는 문화에 좀 더 가까워지게 하고 조기 임상경험을 할 수 있게 한다. 즉, 예비 의학도들에게 의사로서의 삶에 대한 청사진을 구축하는데 도움을 준다.

의학과 1학년과 2학년 시기에는 의료인문학 세미나, 임상의학입문, 의사되기(Doctoring)와 같은 과정에 통합적으로 문학을 가르치고 있는 대학들이 많다. 암이나 에이즈 같은 불치병, 죽음과 임종의 과정, 정신심리학적 문제 등의 주제를 다룰 때 흔히 문학과 연계되며, 의학적 면담, 의료윤리, 의료인문학 교육에 활용된다. 임상 전 의학교육 기간동안 개설되는 '문학과 의학' 과정의 주요 학습목표는 의학교육 전반에 걸쳐 접하게 되는 의과학의 환원주의적 사고와 질환에 대한 개별 환자들의 고유한 경험을 균형적 시각으로 파악하고 통합할 수 있는 능력을 배양하는 것이다. 예를 들어, 하바드 의과대학에서는 죽음과 임종에 대한 세미나에서 솔제니친의 장편소설 "암병동"을 읽게 하며, 로올라 대학 진단학과 과정에서 학생들은 톨스토이의 중편소설 '이반 일리이치의 죽음'을 읽는다.

임상실습교육이나 전공의 과정에서는 일반적

접근에 머물렀던 임상교육 전 단계와는 달리, 실제 진료와 관계하여 문학 작품을 읽게 되며 이때는 주로 윤리적 딜레마가 대부분을 차지한다. 또한, 최근에는 서술적 기술법(narrative writing)이 교육에 활용되기도 하는데, 콜롬비아 대학에서는 의학과 3학년 학생들이 환자의 의무기록을 작성할 때 기존의 기록과 동시에 환자의 진료 과정에서 자신이 느꼈던 감정이나 생각을 적게 하며 이를 'parallel chart'라고 한다. 물론, 개인적 감정을 기술한 'parallel chart'를 의무기록에 끼워 넣지는 않지만, 학생들은 환자 진료에서 자신이 경험한 성취감 뿐 아니라 분노, 슬픔, 괴로움, 절망감, 죄의식 등을 발표하면서 이러한 감정들이 자신만이 겪는 문제가 아니라 다른 학생들이나 전공의, 교수들도 겪는 공통된 것임을 공감하게 된다. 이는 학생들에게 윤리적 감수성을 키워주는 중요한 모멘트가 된다.

기성 의사들이나 교수들은 학생이나 전공의와는 달리 학업의 일환으로서 의무적으로 문학을 접하게 되는 것이 아니므로 폭넓은 장르와 내용에 대한 접근이 가능하며 실제 임상경험이 풍부함으로 이들에게 있어 문학은 더 풍성한 결실을 맺을 수도 있다. 의사들 대상의 문학 세미나 모임을 하는 대학병원들이 점점 증가하고 있는데 캐나다 달루이 대학의 경우 한달에 한번 의사와 그들이 가족이 함께 모여 문학에 대한 토론을 한다.

IV. 외국의 문학과 의학 교육과정 사례

하바드 의대에서는 의사 및 의대 재학생들을 대상으로 문학전공 교수가 진행하는 '작문과정'을 선택과목으로 개설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학

생들은 상상력과 공감 능력을 배양하는 한편 확신과 설득력 및 풍부한 감성을 갖게 되어 환자와 타인을 더욱 깊이 이해할 수 있게 되었다고 스스로 밝히고 있다.

영국의 노팅햄 대학의 의과대학에서는 의학과 마지막 학년의 학생 중 희망자에 한해 '문학속의 의학'이라는 새로운 수업과정을 실시하고 있다. 환자를 직접 만나는 실습 시기에 이루어진 이 수업에서 학생들은 문학작품을 통한 다양한 간접경험과 실제 임상경험을 접목시킴으로서 환자 진료에 대한 적극적인 태도와 적절한 진단적 접근법을 개발시킬 수 있었다고 한다. 학생들은 이 수업에서 자신들의 임상경험을 반추하고 질병이 환자와 가족에 미치는 영향을 심도 깊게 이해할 수 있었다고 보고하였다. 또한, 학생들은 '문학작품을 접한 후 환자를 대하는 태도가 변화했으며 앞으로도 그러한 영향은 계속될 것이다'라고 밝히고 있다(Hampshire, 2001).

옥스퍼드 대학에서도 2001년부터 special study module의 일환으로 의학과 2학년 학생들에게 문학수업을 시행하였다. 수업 후 대다수의 학생들은 환자와 질병에 대한 이해가 증진되었으며 의사소통능력, 발표력, 글쓰기, 윤리적 사고력이 향상되었다고 보고하였다. 또한, 문학수업 경험은 인간과 사회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히고 직업에 대한 성찰을 가능하게 함으로서 개인적 성장과 발전을 촉진하였고 즐거운 경험이었음을 밝히고 있다. 이 대학 역시 임상교육기간 중에 이루어졌기 때문에 문학적 경험을 통하여 진료와 관련된 지식, 수기, 태도에 있어 학생들에게 긍정적 영향을 주었다고 결론을 짓고 있다(Lancaster, 2002).

V. 국내에서의 ‘문학과 의학’ 수업: 고려대학 의과대학의 ‘문학과 의학’

고려대학교 의과대학에서는 2001년도부터 의예과 2학년 학생들에게 의학개론 시간에 〈영화와 의학〉, 〈문학과 의학〉 과정을 시행하고 있다. 의학개론에 문학과 영화를 도입한 목적은 학생들에게 작품을 통한 간접경험을 통해서 의학이 응용과학일 뿐 아니라 사회과학의 일부임을 이해시키고 '인간과 사회에 대한 통찰'과 의업에 대한 심층적 이해를 도모하는 것이다. 12주에 걸친 〈의학개론〉 수업 중에서 〈영화와 의학〉, 〈문학과 의학〉은 6주 동안에 걸쳐 조별토의와 발표 그리고 패널 토의로 진행하였다(이영미, 2002).

인간 내부의 심리적 갈등이나 요소를 섬세히 묘사하고 인간관계의 다양성, 사회현상 등을 더욱 심층적으로 다루는 것은 문학작품이지만, 현실적으로 학생들이 좀 더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방법은 영화매체라고 생각되어 이 수업에서는 영화도 포함 시켰다.

학생들은 이 수업에서 영화와 문학 속에 나타난 바람직한 의사상 또는 부정적인 의료인의 모습을 통하여 이상적인 의료인의 자질과 태도에 대하여 생각할 수 있는 기회가 되었다고 서술하였다. 많은 학생들이 영화와 문학작품을 통하여 실제 의료 및 의사의 삶에 대한 이해가 증가했음을 밝혔다. 의사에 대한 사회적 요구와 기대에 대한 이해가 높아졌으며, 의사의 사회적 책무의 중요성을 깨달았고, 의료과실, 낙태, 안락사 등의 윤리적 문제를 토론하면서 올바른 직업관과 윤리의식에 대하여 생각할 수 있었다고 하였다. 질병과 이로 인한 인간의 고통을 이해하려는 자세가 높아졌으며 바람직한 환자-의사 관계에 대

하여 성찰할 수 있는 기회였다고 응답하였다.

또한, 의사, 환자의 입장에서 뿐 아니라 모든 사람들의 입장을 다각도로 보고 이해하고 존중하는 것에 대한 필요성을 느꼈다고 하였다. 이외에도 영화와 문학작품을 의료와 연관지어서 읽고 생각할 수 있는 것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으며 인문, 사회학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다고 기술하였다.

이 교육과정은 6주간 이라는 짧은 기간동안에 이루어졌으며, 의예과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일개 과목에서 시행된 것이므로 학생들이 이 시간에 느끼고 배웠던 점들이 향후 의학과 교육 내지는 의사생활에 연장되어 어떻게 의사-환자의 관계를 향상시킬 수 있을지는 의문이다. 이러한 교육과정의 경험과 영향이 의과대학 졸업이후인 실제 의사 생활에서까지 계속 유지하기 위해서는 의학 교육 전반에 걸쳐 단계적이며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이며, 또한 다양한 교수 방법과 교육과정의 개발과 효율성 검토를 위한 체계적인 평가 시스템도 동시에 진행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이 교육과정에 대한 장기적인 성과는 정확히 예측할 수 없다, 그러나 단기적으로 교육여건과 방법에 따라 전문직업인으로서 가치관과 도덕성에 대한 감수성 그리고 자기 성찰 능력은 향상될 수 있음을 경험할 수는 계기였다.

VI. 맺음말

‘문학과 의학’은 의사에게 환자 개개인에 대한 깊은 이해와 통찰력을 그리고 의사 자신에게는 환자와 사회가 원하는 의사의 모습과 자신의

한계와 곤경을 헤쳐 나갈 수 있게 하는 자기인식의 과정이기도 하다. 그들에게 문학은 직접 경험하지 못한 상황들 그리고 앞으로도 경험할 수 없는 상황들을 깊이 생각하게끔 하는 계기를 제공한다. 이는 의과대학 교육 과정이후에도 지속되어 의료, 과학, 기술의 한계를 넘어 의사와 환자 사이에 신뢰와 전문적인 직업인인 의사로서 자기 긍정과 발전에 끊임없는 자극과 희망을 제공하리라 본다.

의학교육의 역할중에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의학도들이 미래에 의사로서의 자신의 삶을 보다 풍성하게 영위하기 위해 충분한 준비를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다. 그리고 '문학과 의학'은 이를 성취할 수 있는 중요한 한 방법이 될 것이다.

VII. 참고문헌

1. 이영미(2002). 영화와 문학작품 속에서 의예과 학생들이 찾아낸 것은. 대한의사협회. 제 30차 종합학술대회 문학제 초록집.
2. Calman KC(1997). Literature in the education of the doctor. *Lancet*, 350, 1622-4.
3. Charon R et al(1995). Literature and Medicine: contributions to clinical practice. *Ann Int Med.*, 122, 599-606.
4. Charon R(2000). Reading, writing, and doctoring; literature and medicine. *Am J Med Sci*, 319, 285-291.
5. Charon R(2000). Literature and Medicine; Origin and Destinies. *Aca Med*, 75, 23-27.
6. Downie RS, Hendry RA, Macnaughton RJ, Smith BH(1997). Humanizing medicine: a special study module. *Med Edu*, 31, 276-80.
7. Hampshire A, Avery A(2001). What can students learn from studying medicine in literature? *Med Edu*, 35, 687-90.
8. Lancaster T, Hart R, Gardner S(2002). Literature and medicine : evaluating a special study module using the norminal group technique. *Med Edu*, 36, 1071-76.
9. Sweeny B(1998). The place of the humanities in the education of a doctor. *Br J Gen Pract*, 48, 998-1102.
10. Shapiro J(2001). Ony Connect : Musing on the relationship between literature and medicine. *Fam Med*. 33(50, 349-351